

▶ (질문 6-1) 강원도 내 7개 일반대학, 9개 국가중심대의 '23년-'25년 정원 감축 현황

- 감축인원, 정원대비 감축인원 비율, 모집유보 및 대학원 정원 전환 등 제반 현황 비교

① 외부환경 변화(학령인구 감소)가 대학별 충원율에 미치는 영향

구분		18	19	20	21	22	23	24*		
외부 환경	입학생 수 (만명)	47.4	47.2	46.1	42.9	42.9	?	37.3		
	대학 정원 (만명)	48.1	48.0	47.5	46.9	46.0	?	45.8		
	미충원 인원	7천명	8천명	1만4천명	4만명	3만1천명	?	8만5천명		
	* [참고자료 1] 교육부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자, 재수생, 성인 등 대학에 진학하는 통계를 분석하여 추정된 자료, 대학정원은 '23-25년 정원감축 인원 1.6만명을 제외하여 계산									
대학별 세부 현황	대·경·강원권	한동대	99.9	100	100	100	100	-	-	
		한림대	99.7	99.8	99.9	99.9	100	-	-	
		연세대(미래)	99.7	99.0	99.6	99.9	99.8	-	-	
		춘천교대	100	100	100	100	99.7	-	-	
		대구교육대	100	99.7	100	99.7	99.7	-	-	
		포항공대	99.7	96.3	100	99.7	99.7	-	-	
		영남대	99.8	99.6	99.7	99.4	99.9	-	-	
		금오공대	99.7	99.8	99.7	99.6	99.7	-	-	
		강원대	99.6	99.3	99.7	98.9	99.8	-	-	
		계명대	100	99.8	100	98.4	99.8	-	-	
		경북대	99.6	99.7	99.8	98.5	99.6	-	-	
		대구가톨릭대	99.9	100	99.9	96.2	97.6	-	-	
		경동대	99.9	99.8	99.9	95.5	98.1	-	-	
		동국대(WISE)	99.3	99.4	99.7	93.3	99.8	-	-	
		경일대	99.2	100	99.3	97.6	94.3	-	-	
	세부 현황	경운대	100	100	98.4	98.4	92.9	-	-	
		강릉원주대	99.9	99.6	99.7	92.8	98.6*	-	-	
		동양대	100	100	96.9	81.0	95.3	-	-	
		대구가톨릭대	100	99.9	100	83.8	91.1	-	-	
		대구대	98.9	99.7	100	80.8	91.6	-	-	
		안동대	99.7	99.1	99.9	72.9	79.8	-	-	
		한라대	99.6	99.1	99.0	69.1	56.5	-	-	
		대신대	100	100	100	100	100	-	-	
		김천대	95.7	96.6	95.4	97.3	92.6	-	-	
		위덕대	96.2	94.5	98.7	98.3	91.4	-	-	
		영남신학대	100	100	100	100	87.0	-	-	
		가톨릭관동대	99.3	99.7	99.2	73.7	79.8	-	-	
		상지대	94.8	98.1	97.5	70.2	69.3	-	-	
		대구예술대	77.0	74.4	54.0	31.8	23.3	-	-	
		경주대	32.9	20.5	25.1	15.0	30.7	-	-	
		국가 중심 대학	공주대	99.7	99.9	99.8	99.7	99.9	-	-
			부경대	99.8	99.6	99.8	99.8	99.8	-	-
			창원대	99.4	99.5	99.5	98.4	98.7	-	-
한국교통대	99.3		99.8	99.7	99.4	99.7	-	-		
한밭대	99.8		99.6	99.8	99.6	99.7	-	-		
순천대	99.6		99.1	99.4	89.8	91.4	-	-		
목포대	99.0		97.8	99.0	87.1	86.0	-	-		
군산대	100.0		99.8	99.8	86.5	83.3	-	-		
안동대	99.7		99.1	99.9	72.9	79.8	-	-		

② 대구·경북·강원권(일반대학)* 정원감축 현황

* 주요 대학 평가(기본역량진단 등) 시 권역별 선정으로 실제 비교 대상 대학을 기준으로 작성

대학명	신입생 총원율		순위	2021 입학정원 (A)	감축인원 (B)					2025 입학정원 (C)	정원대비 감축비율	비고		
	'21	'22			'22	'23	'24	'25	계					
한동대	100	100	1	729	-	-	-	-	-	729	-			
한림대	99.9	100	2	1,771	-	-	-	-	-	1,771	-	강원		
연세대(미래)	99.9	99.8	3	1,319	-	-	-	-	-	1,319	-	강원		
춘천교대	100	99.7	4	321	-	-	-	-	-	321	-	강원		
대구교육대	99.7	99.7	5	383	-	-	-	-	-	383	-			
포항공대	99.7	99.7	6	320	-	-	-	-	-	320	-			
영남대	99.4	99.9	7	4,552	-	-	-	-	-	4,552	-			
금오공대	99.6	99.7	8	1,206	-	4	-	-	4	1,202	0.3%			
강원대	98.9	99.8	9	4,512	-	-	60	42	102	4,410	2.3%	강원		
계명대	98.4	99.8	10	4,605	-	-	-	-	-	4,605	-			
경북대	98.5	99.6	11	4,614	-	-	31	32	63	4,551	1.4%			
대구한의대	96.2	97.6	12	1,518	-	30	?	?	167	1,351	11.0%	(예상)		
경동대	95.5	98.1	13	1,644	-	-	-	-	-	1,644	-	강원		
동국대(WSE)	93.3	99.8	14	1,754	-	-	-	-	-	1,754	-			
경일대	97.6	94.3	15	1,584		43	30	-	73	1,511	4.6%			
경운대	98.4	92.9	16	1,184	-	-	-	-	-	1,184	-			
강릉원주대	92.8	98.6*	17	1,833	-	153	-	-	153	1,680	8.3%	강원		
동양대	81.0	95.3	18	960	-	-	-	-	-	960	-	미대상		
대구가톨릭대	83.8	91.1	19	2,862	25	393	-	-	418	2,444	14.6%			
대구대	80.8	91.6	20	4,059	218	28	-	-	246	3,813	6.1%			
안동대	72.9	79.8	21	1,456	45	41	117	-	203	1,253	13.9%			
한라대	69.1	56.5	22	833	-	-	-	-	-	833	-	강원		
대신대	100	100		116	'21년 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23-'25 적정규모화 미대상									
김천대	97.3	92.6		691										
위덕대	98.3	91.4		756										
영남신학대	100	87.0		115										
가톨릭관동대	73.7	79.8		2,045										강원
상지대	70.2	69.3		2,255										강원
대구예술대	31.8	23.3		387										
경주대	15.0	30.7		762										

* '22년 모집정지 인원 92명의 영향으로 총원율 일시 상승

※ 강원대: 대학원 정원 증원(102명), 경일대: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20명), 동국대(경주): 모집유보(11명), 안동대: 대학원 증원(50명) 및 성인학습자 전환(60명)

※ (타 대학 인터뷰) 동양대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23-'25 적정규모화 미대상, 한라대는 총원율 50%대로 정원감축 시 학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감축하지 않음

③ 국가중심대학 정원감축 현황

대학명	신입생 총원율		입학정원 (2022)	감축인원					정원대비 감축비율
	2021	2022		'22	'23	'24	'25	계	
공주대	99.7	99.9	2815	-	-	-	-	-	-
부경대	99.8	99.8	3,270	-	-	-	-	-	-
창원대	98.4	98.7	1,754	-	-	-	-	-	-
한국교통대	99.4	99.7	1,833	-	-	-	-	-	-
한밭대	99.6	99.7	1,678	-	-	-	-	-	-
강릉원주대	92.8	98.6*	1833	-	153	-	-	153	8.3%
순천대	89.8	91.4	1,688	-	20	64	-	84	5.0%
목포대	87.1	86.0	1,591	-	106	-	-	106	6.7%
군산대	86.5	83.3	1,683	-	52	-	-	52	3.0% (미대상)
안동대	72.9	79.8	1411	45	41	117	-	203	14.4%

* '22년 모집정지 인원 92명의 영향으로 총원율 일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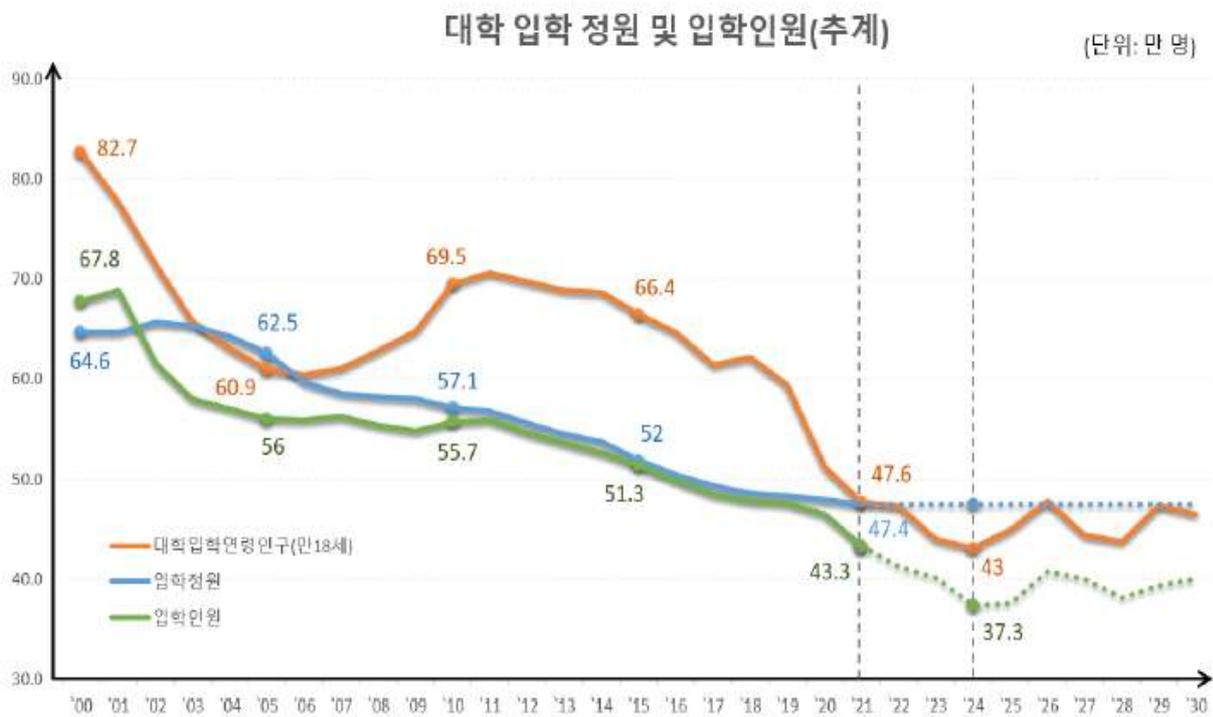
※ (타 대학 인터뷰) 순천대는 84명 감축안을 제출하였으나 유지총원율 점검 후 교육부 컨설팅에 따라 추가 감축 논의 예정, 군산대는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대학으로 '23-'25 적정규모화 대상이 아니며 '24-'25년 추후 감축 예정

※ 정원감축 인원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서 비공개 자료로 공유를 거부하여,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입학인원 추계

교육부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대학 입학정원이 47만 4천 명,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43만 명,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37만 3천 명¹¹⁾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의 충원율보다 낮았고,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림 2] 대학 입학정원과 입학인원 추계 현황



자료: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5.20.

10)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5.20.

11) 교육부가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 재수생, N수생, 일반 성인 등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거의 통계를 분석하여 2024년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추정한 자료임

- ▶ (질문 6-2) 금번 모집 정원 감축으로 인해 대학회계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3명의 정원 감축을 통해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총액은 얼마이고, 정원 감축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학 본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53명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회계 손실 추산액)* 감축 인원 153명 100% 충원 및 1인당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가정하여 추산
- ▶ (질문 6-3) 이번 정원 감축으로 교육부의 지원금은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 쌓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학회계의 운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교연학비 예산의 축소, 대학회계 직원의 감원 등 교수 복지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 본부의 의견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앞서 이번 정원감축 과정에서 구성원 간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과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감축으로 받은 지원금은 불가피한 결정에 따른 수입일 뿐이며, 결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적정규모화로 전체 정원조정 대상 일반대학 136곳 중 55개 대학만이 정원을 감축했으며 평균 11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인원이 과도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6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의 위치는 107위(21년 신입생충원율 기준)이며, 1위부터 89위까지 대학들의 충원율은 98% 이상입니다. 또한, 136개 대학 중 충원율 95% 이하 대학은 우리대학 포함 40개뿐입니다. 본부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하여 결정한 것이며 구성원의 객관적 이해와 판단을 위해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 ① **교육부 '24년 미충원 규모 10만명 이상** 전망 발표, 21년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명 그 중 우리 대학 미충원 인원은 133명, 10만명 미달 시 우리대학 미충원 인원도 급증 예상
- ② **충원율은 주요 대학 평가와 직접 연계**, 4주기 기본역량진단('24)에는 23~24년 충원율이 정량지표로 반영되고 매년 실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유지충원율 점검에도 충원율이 반영됨,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탈락하면, 이듬해 재정지원사업비가 중단 되는데 이 경우 대학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5개 지표 중 3개 이상 미흡시 재정지원 중단되는데 우리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3개 지표가 미흡 우려
- ③ **유지충원율 점검 고려**: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1차 적정규모 컨설팅 실시, 2차 정원감축 권고 및 미이행 시 사업비 중단

- ④ **타 대학 비교 분석:** 우리 대학의 경쟁 대상인 대경강원권 30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의 충원율은 17위, 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8개를 제외하면 **22개 대학 중 17위로 하위 22%**에 해당, 또한 15위권 이상의 상·중위권 대학들은 충원율 100%에 가까워 비교 대상이 아님

이러한 정원감축 권고 및 사업비 중단 압박 속에서 경쟁 대학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대학의 선제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 21년 미충원 인원 133명+탄력정원제 폐과 대상 인원 20명을 감축하였기로 결정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총 1,857백만원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금번 정원 감축이 대학 재정에 지속적 손실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나라 전체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대학 감축인원 153명이 2023학년도 이후로 계속 100% 충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등록금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정원 감축인원 중 일부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부에서는 대학회계 직원 인건비와 교연학지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대학회계 사업비 중 일부를 재정지원사업에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대학회계 현황 '21) 등록금 수입 총 281억 지출 총 277억** [인건비 약 140억(공무원 40억, 강사료 23억,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37억, 공무직인건비 39억) 교연학지비 72억, **사업비 56억**, 부서운영비 10억]

현재 재정지원사업에서는 기존 대학회계 사업비의 최소 30억 이상을 대체 집행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의 재정지원사업 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 수입의 일부 감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재정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 감소로 200억 규모의 재정사업 제한 등으로 이어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뼈아픈 결단에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